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택 상승선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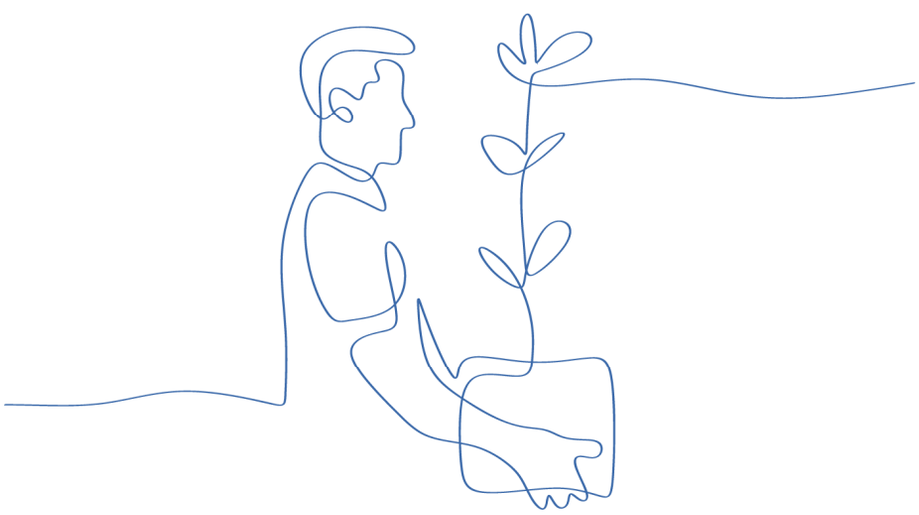
4-3

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택 상승선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4-3

上昇線

상모택

이승선



4-3

[상상 모의고사 임팩트 원 - 상승선]

시즌 4 제3차 모의고사

[선별 세트]
[28~31] 채만식, 치숙



임팩트 원 해설지 활용법

'임팩트 원'은 '상상'과 '이승모T'가 생각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세트, 내지는 되짚어볼 만한 세트를 선별한 것입니다. '상상' 역시 사설이기에, 전 문항을 모두 기출처럼 분석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라는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풀고, 나름의 오답을 한 이후, 가볍게 읽어보면서 가져갈 것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팩트 원 해설지는 총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실전)

- 쉽게 말해 제가 실전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풀었던 방식과 사고를 위주로 설명합니다. 실전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설명하기에, 해설지의 사고와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푼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합니다.~~(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잘 읽겠지요?)~~ 특히 본인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얻어갈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02 |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사후적 학습)

- 실전과 사후적 학습은 항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공부할 때 챙겨갈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계 학습부터, 지문을 읽는 방식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해?'라고 받아들이시면 이건 해설지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가능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꼭 사후적으로 공부하면 추후 학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쓴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03 | 임팩트 원은 해설 강의 역시 상상 국어 유튜브에 제공됩니다.

해설 강의와 겹치는 내용이 있겠으나, 해설 강의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이 해설지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해설 강의는 간결하게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말하는 성격이라면, 이것은 얻어갈 것을 싹 다 털어간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04 | 해설의 가독성과 재미를 위해 약간의 드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관성이 아닌 정성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

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이번 주에 100일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100일과 99일의 차이는 그냥 단 하루일 뿐입니다.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우린 계속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어젯밤에 좀 선선하더라고요. 우리는 대립적인 의미가 동시에 나타날 때 양면성을 갖게 되는데(기출, 한계령), 시간이 빠르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제 좀 더위에서 벗어나 살만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재수를 했지만, 수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의 기복을 최대한 줄이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제가 그땐 참 그게 안 돼서...~~) 오늘도 이 임팩트 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선정은 현대소설입니다. 첫 회차에 현대시 복합, 지난주에 고전시가라 자연스럽게 현대소설 선정했습니다. 채만식의 치숙이라는 작품이 워낙 중요하기도 하지만, 31번의 매력에 끌렸달까? 시작하기 전에 현대소설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현대소설을 읽는다는 건 결국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소설을 잘 읽는 방법? 사실 이런 건 거의 허상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의 도구와 수단적인 가치로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가막힌 방법이 있었다면, 모두 소설을 잘 읽고 있겠지요. 이런저런 방법들은 결국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방법적인 것들이 있으시다면 잘 체화하시되, 저는 늘 '경험치'라는 걸 강조합니다. 아직도 현대소설이 좀 부족하거나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치기를 병행하시되,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풀었을 때 지문 이해가 어려웠거나, 오래 걸린 지문은 사후적으로 다시 읽어보면서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 보는 풍경인데,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설을 읽고 푸는 모습을 보잖아요. 사실 소수의 정말 소설 잘 읽는, 내지는 글을 빨리 읽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거의 읽는 속도 비슷합니다. 끽해봐야 한두 문단 차이니까 한 30초-1분 차이 정도 납니다.(이것도 큰 거라면 큰 거겠지만) 근데 이걸 다 풀고 저를 기다리는 사람과 아직도 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지문 읽는 시간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결국 답을 얼마나 선명하게 골랐냐는 것에서 시간 차이가 더 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 답의 선명도는 곧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애초에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시즌2에는 제가 답의 선명도에만 집중하고 있지요. 이걸 상상 모의고사 임팩트 원에서도 하고 싶은 겁니다. 상상도 한 세트만 제대로 챙겨가라는 의도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듯이, 저도 딱 하나. **답의 선명도!** 이거 하나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기〉를 먼저 읽든, 지문을 먼저 읽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치숙은 연계라 솔직히 저는 〈보기〉 안 보고 바로 읽었습니다만,(~~솔직히 보기에 들어갈 내용도 제 입장에서는 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보기〉 읽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결국 〈보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어와야 하는 것은 '이중적 풍자 구조'라는 말이지요. '나'가 '아저씨'를 까고 있지만, 사실은 '나'도 까임의 대상이다. 뭐 이런 거죠. 사실 연계라서 어차피 설명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제가 학생 때 치숙을 공부할 때는 '아저씨'보다는 '나'를 더 까는 느낌이긴 했는데, 요즘 시대에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는 무기력한 '아저씨'가 더 싫을 수도 있지요.(~~문학의 위대함...~~) 〈보기〉의 이 말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독자로 하여금 초점 화자와 그가 관찰하는 인물 모두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게 결국 요즘 치숙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지 싶습니다. 둘 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왕 시작하기 전에 그럼 아예 정리를 한번 할까요?

나	아저씨
민족, 역사 〈 개인의 안위, 영달	사회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사회주의 운동을 함
보통학교도 마치지 못함, 일본 가게에서 열심히 일함.	대학교 졸업,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능력한 인물.
열심히 노력하면 조선인도 일제 치하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여김	아무리 노력해도 조선인은 일제 치하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여김
아저씨 = 세상에 필요 없는 인간	나 =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속물

이 정도만 잡아놔도 읽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요. 지문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연계 대비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참, 우리 집 다이쇼* 말이 일일이 지당해요.

여느 절도나 강도나 사기나 그런 죄는 도적이면 도적을 해 가는 그 당장, 그 돈만 축을 내니까 오히려 죄가 가볍지만, 그놈의 것 사회주의인지 지랄인지는 온 세상을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고 나라를 통째로 소란하게 하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대요.

용서라니! 나 같으면 그런 놈들은 모조리 쓸어다가 마구 그저 그냥…….

그런 일을 생각하면, 털어놓고 말이지 우리 아저씬가 그 양반도 여간 불측스러 뵈질 않아요. 사실 아주머니만 아니면 내가 무슨 천주학이라고 나쁜 병까지 앓는 그 양반을 찾아다니나요. 죽는대도 코도 안 풀어 붙일걸.

그러나마 전자의 죄상을 다 회개를 하고 못된 마음을 씻어 버렸을 새 말이지, 뭐 헌 개 꼬리 삼 년이라더냐, 종시 그 모양일걸요.

그러니깐 그게 밉살머리스러워서, 더러 들렀다가 혹시 마주앉아도 위정 뼈끝 저린 소리나 내쏘아 주고 말을 다잡아 가지골랑 꼼짝 못 하게시리 몰아세워 주곤 하지요.

저번에도 한번 혼을 단단히 내 주었지요. 아, 그랬더니 아주머니더러 한다는 소리가, 그 녀석 사람 버렸더라고, 아무짝에도 못 쓰게 길이 들었더라고 그러더라나요.

내 원, 그 소리를 듣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체 사람도 유만부동이지, 그 아저씨가 나더러 사람 버렸느니 아무짝에도 못 쓰게 길이 들었느니 하더라니, 원 입이 몇 개나 되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구멍도 있누?

죄선 벙어리가 다 말을 해도 나 같으면 할 말 없겠더구먼서도, 하면 다 말인 줄 아나 봐?

이를테면 그게 명색 훈계 비슷한 거렷다? 내게다가 맞대 놓고 그런 소리를 하다가는 되잡혀서 혼이 날 테니까 슬며서 아주머니더러 이르란 요량이던 게지?

기가 막혀서…… 하느님이 사람의 콧구멍 두 개로 마련하기 참 다행이야.

글쎄 아무려면 내가 자기처럼 다아 공부는 못 하고 남의 집 고조* 노릇으로, 반또* 노릇으로 이렇게 굴러먹을 값에 이래 보여도 표창을 두 번이나 받은 모범 점원이요, 남들이 똑똑하고 재주 있고 얌전하다고 칭찬이 놀랍고, 앞길이 환히 트인 유망한 청년인데, 그래 자기 눈에는 내가 버린 놈이고 아무짝에도 못 쓰게 길이 든 놈으로 보였단 말이지?

하하, 오옳지! 거참 그렇겠군. 자기는 자기 하는 짓이 옳으니까 남이 하는 짓은 다 글렀단 말이렷다?

그러니까 나도 자기처럼 그놈의 것 사회주읜지 급살맞을 것인지나 하다가 징역이나 살고 전과자나 되고 폐병이나 앓고, 다 그랬더라면 사람 버리지도 않고 아무짝에도 못 쓰게 길든 놈도 아니고 그럴 뻔했군그래!

흥! 참…….

제 밑 구린 줄 모르고서 남더러 어쩌구저쩌구 한다는 게, 꼭 우리 아저씨 그 양반을 두고 이른 말인가 봐.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아저씨에 대한 '나'의 비판적 시각이 여과없이 드러납니다. 세부적인 표현을 전부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저씨에 대한 공격이 꽤 수위가 높아요. 문제는 그렇게 대놓고 뭐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한 말에 본인도 긁혔나 봅니다. '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점원이든 지배인이든 얼마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고작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사회주의 운동한다고 사회에 해악만 끼친 아저씨가 자신을 뭐라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밸런스 게임을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누가 더 싫으신지.

"아저씨는 아직두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나이는 나보담 많구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은 모릅니다.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우?"

"이 애?" / "네?"

"네가 방금 세상 물정이랬지?" / "네."

"앞길이 환하니 트였다구 그랬지?" / "네."

"환갑까지 십만 원 모은다구 그랬지?" / "네."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구 내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구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란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네?"

"사람이란 것 제아무리 날구 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그러나 세차게 주욱 흘러가는 힘, 그게 말하자면 세상 물정이겠는데, 결국 그것의 지배하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수가 없는 거다."

"네?"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루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루는 안 된단 말이다."

"젠장, 아저씨두…… 요전 〈킹구〉라는 잡지에두 보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서양 영웅이 그랬답디다. 기회는 제가 만든다구. 그리고 불가능이란 말은 바보의 사전에서나 찾을 글자라구요. 아 자꾸자꾸 계획하구 기회를 만들구 해서 분투 노력해 나가면 이 세상 일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나요? 한번 실패하거든 갑절 용기를 내가지구 다시 일어서지요. 칠전팔기 모르시오?"

"나폴레옹도 세상 물정에 순응할 때는 성공했어도, 그것에 거슬리다가 실패를 했더란다. 너는 칠전팔기해서 성공한 몇 사람만 보았지, 여덟 번 일어섰다가 아홉 번째 가서 영영 쓰러지구는 다시 일지 못한 숱한 사람이 있는 건 모르는구나?"

"그래두 두구 보시우. 나는 천하 없어두 성공하구 말 테니…… 아저씨는 그래서 더구나 못써요? 일해 보기두 전에 안 될 줄로 낙심 먼저 하구……."

"하늘은 꼭 올라가 보구래야만 높은 줄 아니?"

원 마지막 가서는 할 소리가 없으니깐 동에도 닿지 않는 비유를 가져다 둘러대는 걸 보아요. 그게 어디 당한 말인고? 안 올라가 보면 뭐 하늘 높은 줄 모를 천하 멍텅구리도 있을까?

〈중략〉 이후의 내용이 수특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공부를 제대로 해두는 것이 좋지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수특과 겹치는 부분이 나오면 걔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남들이 수특하고 겹쳤다고 이득 봤다고 하는데, 나만 안 볼 순 없잖아요. '세상 물정'에 대한 '나'와 아저씨의 입장 차이가 나옵니다. '나' 입장에서는 아저씨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겁니다. '나' 입장에서 세상 물정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러냐! 뭐 이런 거죠. 아저씨 입장에서는 '나'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겁니다. 아저씨는 세상 물정을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한 힘이나 원리'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도 맞죠. 아무래도

지식인이다보니 조금 더 깊은 통찰이 있긴 합니다.(사회주의 운동하다가 감옥에 갔다왔으니... 이럴 수 있죠. 아! 뜻대로 되는 건 없구나. 이런 겁니다.) 아무튼 세상 물정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기에, 그들의 삶의 태도도 다르게 나타나죠.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일제 치하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는 거고, 아저씨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얘기까지 나오죠. '나'는 나폴레옹을 분투 노력하여 자신의 삶을 개척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신을 투영하죠. 아저씨는 나폴레옹을 세상 물정에 순응할 땐 성공했으나, 거스르다 실패한 인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둘의 입장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둘의 소통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나'가 아저씨 정신 차려요! 난 할 수 있어요! 하면 아저씨가 응~ 안 될 거야~ 하면서 초치는 느낌이랄까.

- 채만식, 「치숙」 -

* 다이쇼 : 주인을 뜻하는 일본어.
* 고조, 반또 : 각각 사환과 지배인을 뜻하는 일본어.

이걸로 한번 읽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지문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연계 위주로 설명한 겁니다. 물론! '치숙'은 지문 내용은 어렵지 않으나,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천차만별일 수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 주제		현실에 순응하는 기회주의적인 '나'와 무능력한 지식인 '아저씨'의 갈등을 통해 드러나는 일제 강점기 두 인간형에 대한 비판과 풍자
◆ 전체 줄거리		일곱 살에 고아가 된 '나'는 자신을 거두어 준 아주머니를 고생시키는 오촌 고모부 '아저씨'를 매우 답답하고 한심하게 여긴다. 아저씨는 과거 조강지처인 아주머니를 버리고 신여성과 살림을 차렸으며,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징역을 살고 나와 현재는 폐병에 걸려 앓아누운 처지이다. 아주머니가 식모살이로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하고 헌신적으로 병수발을 들고 있음에도, 아저씨는 무능력하게 누워 병이 나으면 다시 사회주의 운동을 하겠다는 허황된 소리만 늘어놓는다. 반면, 일본인이 운영하는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는 '나'는 일본인 주인의 눈에 들어 돈을 모으고, 일본 여자와 결혼하여 성명도 일본식으로 바꾸겠다는 속물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야망을 자랑스럽게 떠벌린다. 아저씨는 이런 '나'를 향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일본인에게 아첨하며 자신의 개성마저 잃어버리는 가련한 존재라고 꾸짖는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을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불한당으로 매도하며, 아주머니에게 폐만 끼치고 세상에 해독만 되는 아저씨 같은 사람은 차라리 일찍 죽어 마땅하다고 저주한다.
◆ 핵심 인물 성격 정리	나	일본인 가게의 종업원으로, 식민지 현실이나 민족의 안위보다는 개인의 출세와 영달만을 최우선으로 좇는 극단적인 현실 순응형 속물. 아저씨를 비판하며 우월감을 느끼지만, 실상은 올바른 사회의식이 결여된 무지한 인물임을 반어적으로 드러냄.
	아저씨	일제 강점기의 사회 모순에 저항하며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했던 지식인이지만, 현실에서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며 아내를 버렸던 도덕적 흠결까지 지닌 인물. '나'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꿰뚫어 보고 비판함.
	아주머니	남편에게 소박을 맞고도 고아가 된 조카('나')를 길러냈으며, 병들어 돌아온 무능력한 남편을 헌신적으로 보살피며 가계를 꾸려나가는 생활력 강하고 희생적인 여성.

28.

세부 일치 문제입니다. 기억으로 지우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지만, 꽤 세밀하게 물어보고 있기에, 정확하게 따져주셔야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헷갈릴만한 선지도 하나 보여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① 아저씨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나'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 이건 기억으로 바로 지울 수 있죠. 아저씨는 '나'에게 계속 확인하듯 묻고 있습니다.

> "이 애?" / "네?"
> "네가 방금 세상 물정이랬지?" / "네."
> "앞길이 환하니 트였다구 그랬지?" / "네."
> "환갑까지 십만 원 모은다구 그랬지?" / "네."

② 아저씨는 동일한 말에 대한 '나'와 자신의 이해가 다름을 전제한 뒤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맞지! 이러면서 그냥 갈 것 같은데, 조금 더 깊게 본 아이들이 오히려 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말'을 세상 물정으로 보면 문제가 전혀 없죠.

>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구 내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구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란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문제는, 이 동일한 말을 만약 '칠전팔기'로 보게 되면, 생각이 갑자기 많아진다는 겁니다.

> "젠장, 아저씨두…… 요전 〈킹구〉라는 잡지에두 보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서양 영웅이 그랬답디다. 기회는 제가 만든다구. 그리고 불가능이란 말은 바보의 사전에서나 찾을 글자라구요. 아 자꾸자꾸 계획하구 기회를 만들구 해서 분투 노력해 나가면 이 세상 일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나요? 한번 실패하거든 갑절 용기를 내 가지구 다시 일어서지요. 칠전팔기 모르시오?"
> "나폴레옹도 세상 물정에 순응할 때는 성공했어도, 그것에 거슬리다가 실패를 했더란다. 너는 칠전팔기해서 성공한 몇 사람만 보았지, 여덟 번 일어섰다가 아홉 번째 가서 영영 쓰러지구는 다시 일지 못한 숱한 사람이 있는 건 모르는구나?"

당연히 칠전팔기에 대한 해석, 견해도 둘이 다릅니다만, 칠전팔기에 대한 '나'와 자신의 이해가 다름을 전제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세상 물정은 아저씨가 이해가 다르다는 걸 깔고 얘기하는 게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칠전팔기 같은 경우는 '칠전팔기해서 성공한 몇 사람만 보았지, 여덟 번 일어섰다가 아홉 번째 가서 영영 쓰러지구는' 이 부분을 봤을 때, 같은 뜻이라는 걸 알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읽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꼬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처음부터 '세상 물정'만 보였으면 문제없이, 응 맞지~ 이렇게 할 건데, '칠전팔기'가 보였으면 선명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일단 세모치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답 선지가 선명하긴 합니다.

③ '나'는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아저씨와의 대화를 회피하려 했다.~~

-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표현을 반복'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네?"이게 떠올라야 합니다.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구 내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구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란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네?"
"사람이란 것 제아무리 날구 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그러나 세차게 주욱 흘러가는 힘, 그게 말하자면 세상 물정이겠는데, 결국 그것의 지배하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수가 없는 거다."
"네?"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루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루는 안 된단 말이다."

일단 '나'는 진짜 아저씨 말을 못 알아 듣고 있는 겁니다. 다만 맥락상 아저씨와의 대화를 회피한 적은 없죠. 그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 보니, 일단 회피하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④ '나'는 아저씨의 말에 반박하는 근거로 자신이 잡지에서 본 인물의 말을 활용했다.

- 나폴레옹 활용하고 있죠.

⑤ '나'는 아저씨로부터 생각이 안이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고수했다.

- 바로 돌아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나폴레옹도 세상 물정에 순응할 때는 성공했어도, 그것에 거슬리다가 실패를 했더란다. 너는 칠전팔기해서 성공한 몇 사람만 보았지, 여덟 번 일어섰다가 아홉 번째 가서 영영 쓰러지구는 다시 일지 못한 숱한 사람이 있는 건 모르는구나?"
"그래두 두구 보시우. 나는 천하 없어두 성공하구 말 테니…… 아저씨는 그래서 더구나 못써요? 일해 보기두 전에 안 될 줄로 낙심 먼저 하구……."
"하늘은 꼭 올라가 보구래야만 높은 줄 아니?"

'다시 일지 못한 숱한 사람이 있는 건 모르는구나?' 이게 안이하다는 지적일 거고, '나'는 판단을 고수하죠.

29.

이것 역시 사실 확인입니다. 사실 치숙 자체가, 신빙성 없는 서술자, 그리고 그로 인한 이중적 풍자 구조, 시각 이런 것이 아니면 깊게 물어보기 쉽지 않은 소설이긴 합니다. 상황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지요.

① ~~'나'는 배움이 부족하여 점원으로 자리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 인과를 잘 따지세요. 배움이 부족해도 나 잘하고 있다! 이거죠. 어려움 겪었다고 토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적 없음!

② ~~'나'는 아저씨가 병을 앓고 있지 않다면 그를 굳이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엥? '나'가 아저씨를 찾아가는 건 오로지 아주머니 때문입니다. 아저씨의 천주학 병은 실제 병도 아니고, 아저씨는 현재 폐병을 앓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③ 아저씨는 ~~여러 번 실패했던 자신의 지난 경험을 언급하며~~ '나'의 앞날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 네. 그런 적 없음. 자신의 실패담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④ '나'는 아저씨가 아주머니에게 자신을 헐뜯는 말을 한 이유가 ~~자신의 경제적 성취에 대한 질투 때문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 네. 역시 그런 적 없음. 아저씨가 질투를 한 적도 없지만, 질투때문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⑤ '나'는 아저씨가 추구하는 이념이 돈을 목적으로 한 범죄보다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는 주인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

- 딸깍! 보자마자 찍으면 좋은데,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야겠지요.

> 뭐 참, 우리 집 다이쇼* 말이 일일이 지당해요.
> 여느 절도나 강도나 사기나 그런 죄는 도적이면 도적을 해 가는 그 당장, 그 돈만 축을 내니까 오히려 죄가 가볍지만, 그놈의 것 사회주의인지 지랄인지는 온 세상을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고 나라를 통째로 소란하게 하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대요.
> 용서라니! 나 같으면 그런 놈들은 모조리 쓸어다가 마구 그저 그냥…….

다이쇼가 주인이고, 다이쇼가 한 말이 사회주의가 더 큰 해약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나'도 동의하고 있지요.

30.

㉠ 그 소리는 아저씨가 '나'에게 한 소리입니다. '그 녀석 사람 버렸더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답 선지를 읽자마자, 이게 답이다! 라고 선명하게 느낌이 와요. 그게 안 오면 그냥 오답 선지 다 쳐버리는 거죠.

② 상대를 얕잡아 보는 '나'의 심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 '계기'라는 말이 딱 보이면 됩니다. '나'는 원래 아저씨를 답답해하고 얕잡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나'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걸 알게 된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놓고 공격적으로 디스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적절합니다.

31.

오늘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매주 하듯이 답의 선명도라고 적어놓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누군가는 답선지가 선명하게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선지의 판단이 다 깔끔하고 좋습니다. 딱, 선지 세 개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숙」은 양립 불가능한 두 가치의 충돌을 서사화한 작품으로, 작가는 식민지 체제의 논리를 내면화한 인물을 초점 화자로 설정하고, 그의 시각을 통해 시대 현실 앞에서 실천의 동력을 잃은 지식인의 한계를 조망하게 하는 서술적 아이러니를 구축한다. 작가는 이러한 이중적 풍자 구조를 통해 편견에 사로잡힌 인물이 자신의 부정성을 스스로 폭로하게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초점 화자와 그가 관찰하는 인물 모두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보기는 한번 읽으셔야 하고요. 정리하자면
'나' = 식민지 체제의 논리를 내면화한 인물
아저씨 = 실천의 동력을 잃은 지식인(한계)
이중적 풍자 구조 = 둘 다 풍자의 대상. 따라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③ '자기 하는 짓이 옳으니까 남이 하는 짓은 다 글렀'느냐고 되묻는 것에서, 상대를 비판하는 말이 도리어 인물 자신의 부정성을 드러나게 하는 서술 방식이 나타나는군.

- 둘 중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주관이 개입되면 이건 확실히 선명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기 하는 짓이 옳으니까 남이 하는 짓은 다 글렀단 말이렸다?'하며 아저씨를 까고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주관이 개입되면, 아저씨를 까는 건 알겠는데, 깔만 하니까 까는 거 아닌가? 이것 자체는 '나'의 부정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제 생각에 답으로 고를 것 같진 않지만, 세모 정도는 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고 그냥 떠느는 거니까 아니라면 이해해주시길.) 이건 결국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셔야돼요. '나'의 적은 '나'구나. 라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나' 입장에서 아저씨가 자기 말만 맞고 남의 인생을 틀렸다고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본인도 그러고 있잖아요. '나'도 자기 말이 맞고 아저씨는 틀린 거예요. 쉽게 말해 '나'가 아저씨를 까고 있지만, 사실 본인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게 3번 선지의 의미입니다. 잘 낸 거죠. 다만 이렇게까지 못 잡아 내시면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④ '대학교 공부'까지 한 상대가 '나만큼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것에서, ~~서술자의 왜곡된 시각을 빌려 시대 변화에 뒤처진 지식인의 한계를 풍자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군.~~

-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이제 왜 다 맞지? 이럴 수 있는 선지입니다. 답의 선명도!!!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선지만 좀 차분하게 잘 읽어도 말이 되게 이상하긴 하거든요? '나'가 아저씨 까는 부분입니다. 아니, 가방끈도 길면서 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지? 이건 '나'(서술자)의 시각이죠. 당연히 왜곡된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의 적은 '나'니까 이게 왜곡된 시각이라면 '나'를 까는 것이어야지, 왜 지식인의 한계를 풍자하죠? 이미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서술자의 왜곡된 시각을 빌려서 얘기한 것이 맞다면 그 왜곡을 독자들이 모를 리 없으니까 결국 서술자를 까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굳이 여기서 맥락을 더 해보면, 여기서 까는 지식인은 실천 동력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무능력한 지식인입니다. 시대 변화에 뒤쳐진 것과는 관련이 없기도 합니다.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⑤ '하늘은 꼭 올라가 보구래야만 높은 줄' 아냐는 것에서, 실천의 동력을 상실한 지식인의 내면을 암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그와도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도록 유도하는군.

-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고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인 '나'만 문제가

아니라, 아저씨도 문제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저씨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능력이 없으면 애라도 착해야지. 마누가 냅두고 다른 여자 만나고. 애도 안 착해요... 아마 당시에 이런 인물형이 많았나보죠. 염상섭 삼대에서도 조상훈이 지식인이면서도 이런 짓하고 다니니까~~) 즉 애초에 처음부터 일제 치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지식인을 까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비판적 거리가 확보되지요.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해설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흘러가다보면 내년 겨울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강의에서 누구나 알고 싶은 강의가 될 때까지.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上昇線

상상 이승선

모택

이 책의 저작권은 (주)이매진C&E의 소유이며,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상상국어평가연구소